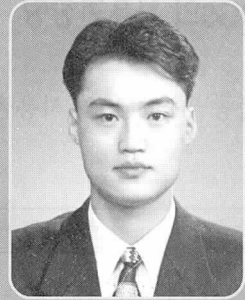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



전익성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사무관

I. 조사료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

1. 수급동향

최근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조사료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06년에는 '05년대비 91천톤(0.2% ↑) 늘어난 4,222천톤을 공급하였다.

- 소 사육두수 : ('03) 1,999천두 → ('05) 2,298 → ('06) 2,484
- 조사료 공급량 : ('03) 4,048천톤 → ('05) 4,131 → ('06) 4,222

'06년 조사료 공급량 중 국내산(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은 3,465천톤으로 자급률이 82% 수준이나, 이중에 2,139천톤(62%)은 볏짚 등 저질 조사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57천톤(18%)은 수입산으로 충당되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나, 조사료 자급률은 초지면적 감소 및 수입조사료 증가 등으로 하락 추세이다.

- 조사료 자급률 : ('03) 84.0% → ('04) 83.1 → ('05) 83.2 → ('06) 82.1

'06년 초지면적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전용 증

가로 '05년 대비 4.5%(44천ha → 42천ha) 감소했으나,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제조·운송비 지원 등으로 농경지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05년 대비 6.2%(97천ha → 103천ha) 증가하였다.

2.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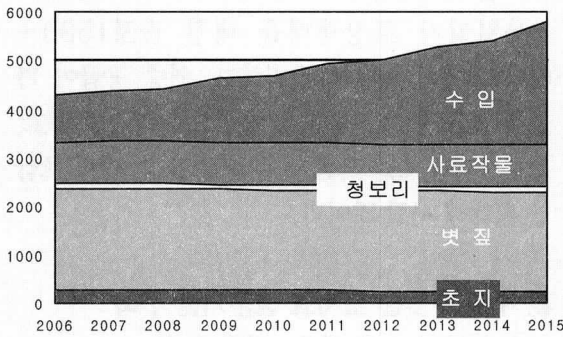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매년 에탄올용 옥수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유가 인상 등으로 수입 조사료 가격 및 국내 배합 사료 가격은 계속 불안정할 전망이다.

조사료 급여비용 증가 등으로 '15년 조사료 수요는 5,790천톤으로 전망되나, 현재의 조사료 자급률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15년에는 조사료 자급률이 57%(국내산 3,290천톤)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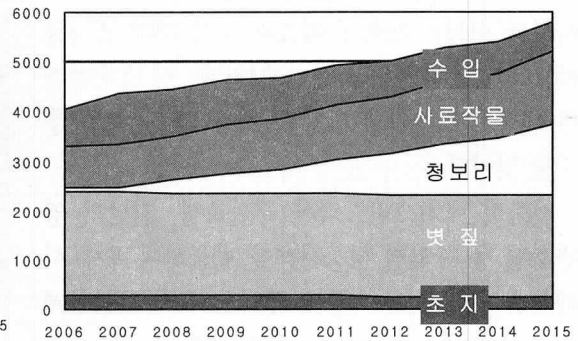
《 조사료 자급률 감소전망 사유 》

- 초지 : 전용증가로 인한 기존 초지 감소 및 신규 조성이 어려움
- 볏짚 : 쌀 수요 감소 및 고령화·도시화 등으로 농지면적 감소

【조사료 확충계획 미수립시】



【조사료 확충계획 수립·추진시】



· 사료작물 : 정책적인 지원없이는 재배면적 확대에 한계

기후 여건상 2모작이 어렵고, 농지 임차료 등이 높은 등 사료작물 재배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II. 문제점

1. 수요 분야

축산농가·TMR 제조업체·브랜드경영체 등에서 국내산 조사료(청보리 등)의 우수성 및 급여 효과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입 조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확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농·축협과 브랜드경영체의 조사료 생산참여 미흡하여 전국 319개 연결체 중 지역 농·축·낙협은 29개(9%)에 불과하고, 한우 브랜드경영체(40개) 중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17개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높은 수분 함유로 인한 변질 및 발효저하 문제 등 품질 및 규격화 미흡으로 축산농가에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배농가의 품질 관리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3. 유통 분야

유통되는 사일리지에 수분 조절제·발효제 등을 첨가할 경우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의무대상이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사일리지 제품이 대형 곤포 형태로만 만들어져 소규모 농가에서 보관·운송 등이 불편하며, 연중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2. 생산 분야

식용 보리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청보리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용품종 종자 공급률은 저조(재배면적의 3% 수준)하며, 식용 보리는 수확량이 적어 농가에서 소득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III. 양질 조사료 생산 추진대책

1. 조사료 수요확충 붐(Boom) 조성

- ① 조사료(청보리)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교육·홍보

영·호남 등 남부지역은 청보리 생산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경기·강원 등 중부지역의 경우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및 가격 우수성(수입 조사료와 비교), 가축 급여효과 등에 대해 조사료를 소비·유통하는 축산단체(업계) 및 소속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전북의 에버그린·익산 군산축협, 전남의 영광축협 등 지역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축종별 급여효과 및 사양단계별 급여방법 등 급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것이다.

②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감축운영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15년까지 '07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다.

· 운영계획(안) : ('07) 840천톤 → ('08) 787 → ('09) 734 → ('15) 420

'08년 할당관세 물량은 '07년 대비 53천톤 감축한 787천톤 배정 계획으로 수입추천기관의 물량배정시 지역 조합 및 TMR 가공업체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유통실적에 따라 배정물량을 차등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③ 품질개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청보리 사일리지 “생산실명제”를 도입하여 생산·수확·가공시 재배농가 및 연결체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08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관외 운송비는 제품포장에 실명제를 표기한 연결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사일리지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품질평가회를 실시(8월)하여 그 결과를 축산농가에 환류하는 등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평가 체계

구축할 것이다.

사일리지 포장형태를 대형 곤포(500~600kg)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연중 공급이 가능한 소포장(20~25kg) 제품으로 다양화하고,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소포장 제품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수요에 맞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① 청보리 종자 생산·공급 확대

청보리 전용품종 종자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4년까지 전체 소요량의 100%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종자관리소·지자체·농협중앙회의 자체 채종포를 통해 재증식 보급하는 등 우량종자를 최대한 공급토록 할 것이며, 청보리 재배면적이 많은 전·남북 지역에 정선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다.

· 공급계획 : ('07) 0.2천톤 → ('08) 1.5 → ('09) 3 → ('12) 14 → ('14) 20

종자는 연결체·브랜드경영체 등 대규모 집단화된 생산조직에 우선 공급하고, 「사전주문생산공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보리 보급종 공급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검사기준이 까다로운 곡실용 보리종자 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청보리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종자관리요강을 개정하여 청보리의 사료용 종자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보리 재배농가의 비용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 등을 위해 '08년부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청보리 종자구입비를 지원한다.

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료작물 재배 육성

청보리·호밀·귀리 등 우수 맥류품종 시범포를 200개소 조성(농촌진흥청)하여 전국적인 조

사료 생산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규모 농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의 신청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적합한 사료작물 작부체계 마련하고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퇴·액비 활용시험을 추진하고, 재배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새만금 간척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이다.

③ 조사료 생산·이용 선도조직 중점 육성 및 관리강화

한우 브랜드경영체 및 지역 농·축협 등을 조사료 생산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에 참여하는 지역 농·축·낙협에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보리 생산량 톤당 275천원(ha당 5,500천원)을 지원할 경우 톤당 15천원(금리 5.5% 기준) 정도의 보조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브랜드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조사료 생산·이용량을 반영토록 하고, 경진대회 등 브랜드 경영체 평가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④ 기계·장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작부체계 구축 및 지원

조사료 수확 작업일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수확시기가 다양한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수입 종자를 대체하고 다양한 작부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산 동계 사료작물 우수품종을 개발 및 보급(농촌진흥청)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관리소는 '08년에 호밀·귀리·트리티케일 등을 시범 채종하고, '09년부터 지자체의 자체 채종포에 확대 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3. 조사료 사일리지 유통활성화

현행 규정상 사일리지에 수분조절제 및 발효촉진제 등을 혼합할 경우 섬유질가공사료 또는 발효사료로 분류되어 제조업 및 성분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청보리 등 사료작물 사일리지에 미강 등 수분조절제 및 발효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사료공정서를 개정하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첨가제 사용 조건하에 지원할 것이다.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료가공시설자금 지원시 소포장 기계 및 트랜치 사일로 설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TMR 제조업체중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자금 지원시 우선 선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FTA / DDA 협상이 진전되면서 앞으로 개방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세계적인 바이오 에너지 개발과 유가 인상으로 국제 곡물이 불안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